



2007 서울특별시지부 외국인 건강검진 개시

글: 김정희(서울특별시지부 행정지원팀장)

본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는 전염병예방검진사업의 일환으로, 서울특별시의 지원 하에 2002년부터 한센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에 체류하는 조선족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. 연 24회 3,000명을 목표로, 주로 공휴일에 외국인이 자주 모이는 종교단체 등의 장소에 출장검진 형태로 흉부엑스레이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,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검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.

2002년 - 2006년 검진실적

(단위: 명)

명 \ 년도	총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
검진인원	10,665	1,976	2,455	1,842	1,683	2,709
유소견자수	320	62	59	53	53	93
유소견자(%)	3.00	3.14	2.40	2.88	3.15	3.43

이번 2007년 첫 번째 외국인 검진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. 주로 스리랑카 등의 동남아 지역의 불교국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검사에서는 총 94명의 대상자를 검진하였습니다. 아울러 심한 격무와 집단생활 등으로 결핵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판넬 전시 및 유인물 배포하여 결핵예방교육도 병행하여 환자발견사업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

- ▲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진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.
- ▶ 본 지부 검진요원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흉부엑스선 촬영을 시행하고 있다.



이러한 출장 외국인 검진사업 뿐만 아니라 평일 진료가 어려운, 결핵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 복십자지원에서 추가로 무료진료를 실시, 이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.

복십자지원 무료진료사업 실적

연도별	진료연인원	결핵치료인원(진료인원대비)	비고
2002년	274명	35명 (12.7%)	2003년 6월부터~
2003년	411명	131명 (31.9%)	
2004년	762명	356명 (46.5%)	
2005년	943명	423명 (44.9%)	
2006년	843명	470명 (55.7%)	
계	3,233명	1,415명 (43.8%)	

이러한 결핵예방검진 및 진료사업은 최근 결핵유병율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 결핵후진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, 아울러 결핵 전염원을 미리 차단하여 서울시민의 건강보호와 본회 이미지 및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†